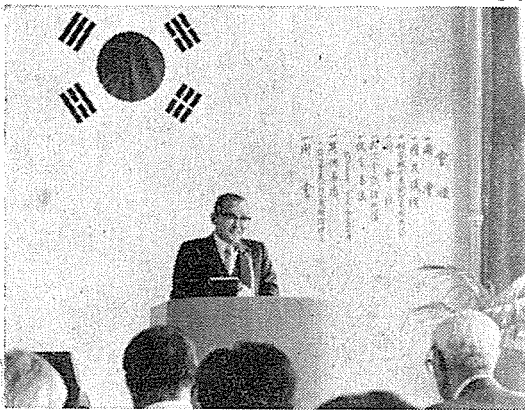


1978年度 第1次 臨時總會

定款一部改正 理事數늘려

懸案問題解決의 旗手다짐



科總 78年度 第1次 臨時總會가 閔寬植新任會長의 主宰로 지난 3월 14일 과총회의실에서 대의원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新任 閔寬植會長은 開會辭를 통해 『과학자가 이 나라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社會的인 地位나 認識에 있어서 正當한 待遇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이 회장직을 맡으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과학도 출신인 자신이 지금까지 과학계나 과학도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속죄의 기회로 생각하여 있는 힘껏 우리나라 과학계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閔會長은 그러나 『그같은 일들은 개인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과총에 가입되어 있는 학회나 단체가 힘을 합쳤을 때 지구덩어리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旗手노릇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단

결된 힘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까지 140여개 단체수에 비해 이를 대표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理事의 수가 적다고 지적, 理事數를 대폭 확충하여 참여도를 높일 것이며, 또한 평의원회를 자주 가져 衆智를 모아 우리나라 과학정책에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정부당국에 시정토록 요구하고 과학정책 수행시 앞질러 의견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閔會長은 科總이 안고 있는 당면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소극적인 학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정부당국에 건의하여 대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科總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또 과학인들이 바라는 것 등에 대해서도 정부측에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의 뜻이 일부나마 단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閔會長은 끝으로 『본인의 정력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지도와 협력에 힘입어 한국의 과학자가 나아갈 길을 다같이 의논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이날 총회의 주요안건인 定款改正案이 심의되었는데 任員의 數는 副會長(理事)을 6人(前 5人)으로, 理事를 20人以內(前 10人)로 대폭 늘리는 等 定款 第 11條를 비롯한 일부정관을 改正 통과시켰다.

이어서 1966년부터 초대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科總의 發展과 과학기술인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높은 지도력을 발휘한 前任會長 金允基박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